

고등교육 정책소식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 수립·추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안병만)는 능력만 있으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해외유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비유학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층을 위한 선발방식 개선〉

먼저 우수한 수학능력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 의식을 갖춘 서민층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필기시험 위주의 선발방식을 ‘입학사정관 방식’의 심층면접 선발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기존의 1차 시험인 외국어 성적을 자격요건으로 변경하여 일정 수준의 통과 여부만을 심사하고, 2차 시험인 전공필기 시험도 심층면접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로 대체하여 서민층 학생의 시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 및 사회수요를 고려한 파견 국가·분야 선정〉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된 선발분야를 광역화하여 응시자들의 파견국가 및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가 및 전공을 별도로 지정하여 우선 선발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신아시아 외교구상, 자원외교,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녹색성장 등 국가전략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및 관리 강화〉

교과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여 지원액을 조정하는 한편, 현재 2~3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을 우수 학생에 한해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파견인원도 2009년 40명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능력과 열정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 유학을 포기했던 서민층 학생에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선발국가 및 분야, 평가내용 등을 마련하여 2010년도 국비유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 방안

교과부는 2009년 9월 22일(화),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와 아울러, 우수학생 유치 및 질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내실화 등 4개 중점분야의 12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

였다. 외국인 유학생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을 입학절차·학사관리·비자연장 등 콘텐츠 확충과 해외에서도 접속·검색이 가능토록 해외 공관, 교육원, 문화원과 연계링크를 설정하고 재외 공관 및 한국 교육원, 한국문화원을 통한 On/Off-Line으로 유학정보 상시 제공과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금 확대, 다양한 국가·대학과 학생교류를 통한 유학생 유치다변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체계적 선발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유학생의 최소 수 학요건과 대학의 이행사항을 명시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 및 대학 공시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의 어학연수기관에 대해서도 대학(원) 예비 입학생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시험횟수 확대, 채점기간 단축, 시험시기 조정, 시험 문항 다양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 수학 편의를 위하여 대학 내에 외국인 유학생을 전담 지원하는 전담인력 또는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며 '외국인 유학생 콜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학생의 각종 애로·불만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안내하고 정주여건 및 취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학 공동 기숙사 건립,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 공개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정도, 유학생 이탈률, 어학연수 후 대학진학률, 국가별 유학생 구성률 등을 대학공시 및 대학 국제화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학생 관련 업무를 On-line 서비스하는 '유학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등 교육분야 국제인력 교류에 관한 정책전문기관을 지정 및 육성할 계획이다.

2010년 1학기부터 전국 240여 개 대학 학점 교류 실시

교과부에서는 2009년 9월 2일(수), COEX에서 10개 권역별 이리닝지원센터 주관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권역내 대학에서만 이루어진 이리닝 학점 교류 및 콘텐츠 공유를 전국 240여 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9월 1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하여 그동안 각 권역별로 추진되어 왔던 대학이리닝 활성화사업이 전국 차원으로 확대되어 이리닝(e-learning)이 국내 대학교육 현장에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08년 e리닝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리닝 시장 총 매출액은 1조 8,704억 원으로 전년대비 8.3%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리닝 이용자의 75.3%가 오프라인 교육대비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도 2005년 이후, 우리나라가 개발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간 해외 관계자가 45개국 2,758여 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리닝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협약을 체결하는 대학은 전국대학이리닝지원센터협의회 회장교 영남대(총장 이효수), 권역별 주관대학인 강원대(총장 권영중)와 경상대(총장 하우송), 인하대(총장 이본수), 전남대(총장 김운수), 전북대(총장 서거석), 제주대(총장직대 최치규), 청주대(총장 김운배), 충남대(총장 송용호), 한양대(총장 김종량) 등 총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로부터 '03년부터 연차적으로 권역별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스튜디어형 강의실 등 기반시설구축비 및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받아 지금까지 118개 대학, 1,692개 강좌를 개설하고, 권역 내 참여

대학들 간의 이러닝 콘텐츠 공동개발 및 학점교류, 평생교육 등 이러닝 보급 및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학 간·지역 간 학습 불균형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여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그동안 각 권역별로 추진되어 왔던 대학이러닝 활성화가 전국 차원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전문대학원 개교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인재를 육성할 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처음 문을 연다. 교과부는 2009년 9월 30일(수), “전문대학원 신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려대 그린스쿨 등 2010학년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가를 받은 대학원은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 전문대학원과 신약전문대학원, 고려대 그린스쿨과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안동대 한국문화산업 전문대학원 등이다. 이들 전문대학원은 앞으로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녹색기술, 신약개발, 에너지·환경, 융합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문가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 정원은 대학원별로 20~30명 선이며, 5개 대학원은 교원 및 교사(敎舍) 확보 등 준비 절차를 거쳐 개원한다.

한국-오스트리아, 고등교육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009년 9월 14일(월)~5일

(화)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해 오스트리아 연방과학연구부와 “한국·오스트리아 고등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안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과 함께 오스트리아 연방과학연구부 요하네스 한(Johannes Hahn)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고등교육 분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및 제2차 한·오 과학의 날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Austrian Exchange Service(OAD)’에 대비되는 우리나라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사업’에 오스트리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ASEM-DUO 장학사업 및 KIST 국제 R&D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오스트리아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 분야 교류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공동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제2차 한·오 과학의 날 행사를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양국 교육장관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고등교육 및 과학연구 관련 기관 및 대학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양국 학생·학자들에 대한 장학금 및 연구지원금 신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간 인적교류 확대 및 ‘10년도 과학의 날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1회 대학총장 아카데미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대학 경영혁신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총장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대학총장 아카데미는 국내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28명의 대학총장들이 모여 대학교육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학총장 아카데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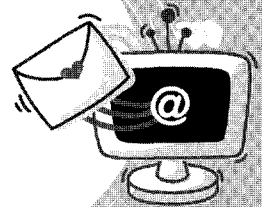
2009년 10월 9일부터 2010년 5월 21일까지 총 12회로 구성되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손병두 KBS 이사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특강과 총장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9일 제1회 대학총장 아카데미에서는 이어령 박사를 초청하여 <디지털 시대 학습 환경: 유비쿼터스와 아날로그> 주제 특강과 참여 총장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교협 이배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리 대학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과제를 맡고 있다”며 총장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학총장 아카데미는 세계 고등교육 동향에 관한 최신 정보와 국내 대학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학습하고, 대학총장들 간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상담콜센터 개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하 '대교협')와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대입상담콜센터」를 개설하고, '09. 9. 10.(목) 오전 9시 대교협 중앙라운지(11층)에서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배용 대교협 회장,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 김병기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이재철 전국입학관리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대교협 콜센터를 둘러보고 상담팀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들과의 실시간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정확한 내용의 대입정보를 학생·학부모에 적시에 제공할 뿐 아니라 시설 건설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배용 대교협 회장은 콜센터가 향후 대입전형 선진화의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고, 대입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 weeklynews@kcue.co.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